

제 4 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공모 당선 작품소개

이 글은 당협회가 '88년도 우유 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4회 전국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응모자 5,759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화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상 1편, 우수작 2편,佳作 5편, 입선작 10편, 장려상 30편 등 총 48편이 당선되어 지난해에佳作 3편을 게재하였으며 이번 호에는佳作 2편과 입선작 3편을 소개하고, 잔여 입선작과 장려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지에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註)



佳作

‘우유는 내 친구’

수원 화홍 국민학교
4~1 엄기원

“멍둥, 멍둥, 멍둥!”

저녁 시간에 우리 집 초인종이 세번 울리면 틀림없이 우리 아빠다. 반가워서 뛰어 나가면, 아빠께서는 언제나 간식 봉투를 들고 오신다.

사람들은 내가 아빠 얼굴은 물론 성격까지도 꼭

빠 닮았다고 한다.

아빠와 내가 또 닮은 것은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다.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웬만하면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신 엄마께서는 발을 동동 구르실 때도 있다.

내 동생 다영이는 엄마를 닮아서 살결이 고운데 나는 아빠를 닮아서 살결이 검다.

“이 집 아들은 태국에서 좃어 온 아이 같애.” 하고 사람들이 놀려 댈 때마다 기분이 안 좋다.

그러나 아빠께서는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생겼지.” 하시며 고슴도치 턱으로 뽀뽀도 해 주시고 껴안아 주신다.

외할머니께서는 나를 보실 때마다 아무거나 잘 먹고 살 좀 찌라고 하신다. 그래서 나는 밥도 잘 먹고 간식으로 우유도 열심히 먹는다.

나는 피부가 검으니까 손해를 많이 본다. 목욕을 깨끗이 했어도 목 좀 깨끗이 닦으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내 옆의 짝은 나에게
“우리 반에서 마이클 잭슨을 닮은 아이가 누구게.” 라는 퀴즈도 낸다. 피부가 검은 나를 놀리는 것이다.

그 날 저녁, 나는 우유를 먹지 않고 남겼다가 열굴과 목에 우유 맛사지를 했다. 전에 막내 이모가 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우유를 바르고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외계인처럼 못 생겼다. 그러나 맛사지로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내가 아빠를 닮았으니 어쩔 수 없지…….

그 후로는 검은 피부에 대하여 포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것과 운동하는 것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 덕분에 지금은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는 우등생이 되었다.

나는 아침밥은 입맛이 없어 조금밖에 못 먹는다. 그대신 아침에 학교 갈때는 배달 우유 1컵을 마시고 간다.

학교에 가면 둘째 시간을 마치고 학교 우유를 또 먹는다.

저녁에는 간식으로 콜라 대신 우유를 마신다.

이렇게 해서 우유는 나하고는 뗈 수 없는 친구가 되었다. 지금은 내 짝도, 친구들도 나를 검다고 놀려대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나를 부러워한다.

그것은 모두 우유 덕분이다. 열심히 먹은 우유가 나에게 건강을 주었고, 건강한 몸은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며칠 전 다녀 가신 외할머니께서 내 칭찬을 많이 해주셨다.

“기원이가 이젠 제법 사람꼴이 되어 가는구나.” 라고 하셨다.

집에서 마시는 우유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학교에서 마시는 우유는 나를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기적

우리집은 우유가족

인천 만수북국민학교
6~6 김애란

5학년 때 일이다.
학기초라서 선생님께서는 짝을 배정해 주셨다.
그런데, 나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짝이 깨끗

하지도 잘 생기지도 못했다. 그저, 구질구질하고, 콧물은 한없이 흘러내렸다.

‘아이, 참.’

정말 그때는 그런 쪽으로 정해 주신 선생님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위에 있는 아이들로부터 내 쪽의 가정 형편을 알게 되었다.

내 쪽의 아버지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셨고, 또 어린 동생이 둘이나 있어 어머니께서는 살림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아침에는 우유 배달, 점심에는 식당에서, 저녁에는 신문을 돌리신다고 했다.

이렇듯, 가정 형편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니, 내 쪽에 대한 내 행동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웬지 모르게 그 아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식구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 날, 아빠와 엄마께 내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아빠께서는

“아유, 우리 애란이가 언제부터 그런 착한 마음을 가졌을까?”

하시며 의아해 하셨다.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빠가 답답했다. 그래서,

“아빠! 이것은 농담이 아니예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결결결.”

하시며 웃으셨다.

그러자, 엄마께서는 내 편을 들어주시려 하셨는지

“애란아! 네 생각은 어떤지 말해보렴.”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처음부터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가족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아빠께서도 엄마와 함께 생각에 잠기셨다.

꽤 시간이 흘렀다.

그러자, 엄마께서 말씀을 하셨다.

“직접적으로 도와 주면 네 쪽이 기분 나쁘게 생

각할 수도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도와 주는 것이 좋겠지? 그런데, 네 쪽의 엄마께서 아침에는 우유를 점심에는 식당에서, 저녁에는 신문을 돌리신다고 했지?”

“네.”

“그럼, 신문은 가끔 사다 보고 하니까 그렇고, 우유를 우리 가족이 하루에 약 400밀리리터씩만 먹기로 하자. 그럼, 우리 가족은 우유를 많이 먹어 몸에 좋고, 또 네 쪽의 엄마는 수당이 올라가겠지?”

하시며 웃으셨다.

이 의견은 아빠께서도 찬성하셔서 우유에 관해 참고로 말씀해 주셨다.

“우유는 계란과 함께 완전 식품이라고 하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특히 너희들처럼 한창 클 시기에는 가장 필요로 하는 식품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후부터 우리 식구는 지금까지 우유를 계속 마시고 있다.

지금 내 쪽이었던 아이는 전학을 갔지만, 그 아이의 엄마는 아직도 우유 배달을 하고 계신다.

아빠와 엄마는 물론 나와 내 동생 모두 내 쪽을 도와 준다는 마음을 우선으로 하여 마셨기 때문에, 여지껏 우유가 냉장고 안에 가득 들어있을 때가 거의 없었다. 그 결과 우유 덕분인지 5학년때 네번째에 앉아 있던 내가 6학년인 지금은 여섯번째에 앉는다. 나 뿐만 아니라 키가 작아 맨 앞에 앉던 내 동생도 작년과 올해 사이에 키가 7센티미터나 컸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께서도 아침마다 우유를 드시게 되었다.

정말 우리 식구는 내 쪽이었던 아이 덕분에 우유 가족이 된 것 같다.

이제는 우유가 물과 같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음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고마운 우유

서울 동자국민학교
3~6 오 승 욱

새 학년이 되어 다른반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때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은 금숙이란 아이가 있었는데, 나는 처음에 금숙이와 놀고 싶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너무 지저분한 여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점심 시간이 되었을때 금숙이는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고 우유 마시는 시간이 되어도, 금숙이 책상에는 우유가 놓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은 차례로 금숙이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도 집에 와서 엄마한테 금숙이 얘기를 하였더니,

“요즈음에도 그렇게 가난한 아이가 있구나. 건택아, 잘 들어. 앞으로 밥도 잘 먹고 우유도 엄마가 주는 것은 다 마셔. 그 아이를 도와야겠구나.”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금숙이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도 금숙이를 내 힘으로 돕고 싶어요.” 하고 말씀 드리니까 엄마께서

“그래 좋은 생각이다. 아빠가 주시는 용돈을 아꼈다가 확용품이라도 사주려므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우유 마시는 시간에 금숙이도 함께 우유를 마시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사다주시는 과일이나 간식만 먹고 아버지께서 하루에 200원

씩 주시는 돈을 조금씩 모아서, 우유값을 내는날 금숙이 우유값도 함께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숙이 우유값을 내가 매달 내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우유값 낸 사람을 확인하시면서

“승욱이가 금숙이 우유값을 내 주었다. 고맙게 생각하고 얼른 튼튼해지거라. 공부도 열심히 하기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학교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남을 돕는다는 마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금숙이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용돈 모은 것으로 금숙이 우유값 내줬어요.”

하였더니 엄마는 눈물을 글썽 거리시며

“우리 아들이 대견하구나. 남을 돕는다는 것은 복 받는 일이란다.”

하셨습니다.

그 후로 나는 금숙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우유 마시며 웃는 모습을 볼때마다 ‘금숙이도 얼른 키가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도 우리 반 엄마들과 돈을 모아서 금숙이 예뻐웃도 여러 벌 사주고, 머리도 예쁘게 깎아 주어서 금숙이는 이제 깨끗합니다. 얼마전에 선생님께서


“금숙이가 우유를 매일 마셔서 얼굴도 희고 많이 예뻐졌구나.”

하시니까 나는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여러 가지로 고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부터 우유를 많이 마셔서,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중학생 같다.”
고 합니다.

나는 우유를 마실때 마다 ‘고마운 우유야’하고
마음속으로 불러 봅니다.

인



우리집은 우유가족

대구 서부국민학교
5~3 이 태 경

우리 옆집 아주머니는 우유 배달을 하신다.
매일 새벽 일찍 나가셔서 우유 배달을 하고 아
침 7시가 넘어야지만 들어오신다.

아주머니는 매일 팔고 남은 우유는 우리에게 주
신다.

“오늘은 한 개 밖에 안 남았어요.”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유 한 개를
가지고 오셨다.

“아니여요. 이렇게 매일 얻어 먹으니……. 그러
지 마시고 아주머니 아이들 갖다 주세요.”

아버지는 무척 미안해 하셨다.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은 매일 먹는걸요. 몸도
별로 안 좋으신데 아저씨 드세요.”

아주머니가 매일 남은 우유를 우리에게 주는 이
유는 아버지께서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직장도 그
만 두시고 집에서 쉬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생
활비는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쳐
주신다. 이런 우리집 사정을 아시는 아주머니는
매일 우유를 주신다.

아주머니가 늦게 들어오시고 아저씨는 일을 나
가시면 옆집 동생들은 학교 갈 준비도 하지 않고
자기 때문에 가끔 내가 깨워 주고 이불도 개어 준
다.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는,

“오늘도 태경이가 아이들 깨워 주었구나. 고마

워서 어찌지.”

하셨다.

“아니여요. 아주머니가 더 고마운 걸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유를 드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다.

나는 꼭 아버지께 우유를 드시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버지, 저 배 아파서 우유 못 먹겠어요. 아버
지 드세요.”

하며 우유를 드렸다.

며칠 그렇게 피병을 해서 아버지께서는 우유를
드시게 되었다.

“우유를 먹으니까 속이 든든하구나.”

하시며 말씀하실때 아버지 얼굴은 훨씬 좋아 보였
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무척 기뻐다.

그래서 다음날은 아버지께

“우리 가족 회의 해요.”

하고 말씀드렸다.

동생과 아버지가 오시자 나는

“아빠, 우리도 돈 내고 하나씩 받아먹어요. 그렇
지 않으면 아빠께서 매일 안 드시잖아요. 아빠께
서도 우유 드시니까 속이 든든하다고 하시지 않으
셨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태경이 말이 맞구나. 우리 돈을 내고 우

유를 식구 모두 하나씩 먹자.”
하셨다.

그래서, 우리 식구 모두 우유를 하나씩 받아 먹
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2학년 때의 일이다.

우리집은 3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우유를 받아
먹고 있다.

아버지도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아 보았는
데 3년전에 비해 매우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하셨
다.

그리고 내 동생 창수는 우유를 너무 많이 먹어
서 돼지라는 별명이 붙었다.


나도 키가 무척 많이 커졌다고 한다. 지금은 밥
은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지만, 우유는 꼭 먹어야
한다.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가 식사를 맡아 하시
는 우리 집은 일일이 영양을 갖춘 음식을 못해 줘
서 걱정하시던 아버지께서도 우유를 먹고 부터는
마음이 든든하다고 하신다.

하늘 나라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이 사실을 아신
다면 마음을 놓으실 것 같다.

앞으로 아버지의 몸도 회복되고 나와 동생도 무
력무력 자라겠지.

우유의 도움으로…….



우유와 나의 건강

청주 서원국민학교
6학년 최혜경

어두컴컴한 일요일의 새벽길을 아빠와 오빠를
따라 약수터로 향해 뛰었다.

배낭 안에서는 빈 약수병들이 서로들 싸우는지
떨 적마다 덜컹덜컹 소리를 냈다.

상쾌한 새벽 공기를 마시니, 그 먼길이 그날따
라 가까운 것 같았다.

아빠도 나처럼 상쾌하신지,

“자주 뛰어야겠는 걸. 새벽 공기가 너무도 상쾌
하단 말이야.”

하셨다.

어느 새, 약수터에 다다랐다.

이마에 송알송알 맺혀있는 땀방울을 닦았다. 어
두컴컴한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리부터 와
있던 사람들 몇 명이 차례로 줄을 서서는 물을 받
고 있었다.

어느 새 우리 차례가 되어 철철 넘치는 약수물

을 받고는 집으로 향했다. 아까와는 달리 너무도
무거웠다. 어느 새 컴컴하던 새벽길이 아침길로
바뀌어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대문 앞에 우유가 와 있었다. 나
는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해서 얼른 집안으로
들어와 컵에다 우유를 따라서 마셨다. 뛰어서 그
런지 우유맛이 그만이었다. 너무도 맛있어 다시
한컵을 더 따랐다. 이런 나를 보신 아빠께서는,

“그래,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서 나쁠 것 하나
도 없으니.”

하시며 빙그레 웃으셨다.

나는 갑자기 우유에 관한 궁금증이 생겼다.

“아빠, 우유와 저의 건강이 무슨 관련이 있죠?”

아빠는,

“그래, 우유를 그냥 마시는 것 보다는 우유의
고마움을 알고 먹는 것이 예의겠지.”

하시며 내 몸 속에 들어간 우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아빠는,

“우유에는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과 무기질이 들어있고, 유지방과 단백질 등의 필수 영양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너 같은 어린이가 먹으면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져서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질 강한 어린이가 될 수 있단다.”

하셨습니다.
나는 아빠의 말씀에,
“우유에 그런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지 자세히도 모르고, 그냥 맛있기만 해서 마셨는데 이제부터는 우유가 저의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마실게요.”

하고 말씀드렸다.
나의 몸이 이렇게 튼튼하고 건강하게 된 것이 꼭 이제까지 마시던 우유의 덕택인 것 같았다. 또한, 우유가 나 말고도 내 친구들을 비롯한 모든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었다고 생각하니 우유가 바로 모든 어린이들의 건강인 것처럼도 생각되었다.

우유의 영양가치

